



# 암나무와 수나무

김성현

꿀꿀이가 심은 살구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오롱조롱 맺혔습니다.

작고 새파랗던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노랗게 익어가자 꿀꿀이의 마음은 흐뭇해졌습니다.

(이제부터는 해마다 살구를 맛보게 됐군.)

어느날 다 익은 살구를 말끔히 따들인 꿀꿀이가 창고에 열매를 들여놓고 나오는데 건너마을 너구리가 찾아왔습니다.

《아니, 자네가 어떻게...》

《우리 막내가 살구를 먹고싶다기에 찾아왔는데...》

맛있는 살구를 주기가 몹시 아까와난 꿀꿀이는 때마침 열매를 딴 빈 살구나무를 쳐다보며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.

《허참, 내가 나무를 잘못 심었다네. 이 나무는 글썄 몇년이나 키우도록 어디 열매가 달려야지. 아마 수나무인 모양이야.》

《수나무라니?》

너구리가 머리를 기웃거리자 꿀꿀이는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습니다.

《자넨 영 깜깜이군. 은행나무에도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라고 왜 없겠나. 산에 가보게. 밤나무라고 해서 다 밤이 열려있고 다래덩굴이라고 해서 다 다래가 달려있는것도 아니라네.》

과일 나무를 키워본적이 없는 너구리는 꿀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



《거참, 그래서 이 나무에 살구가 없었대군.》

너구리가 돌아가자 꿀꿀이는 자기가 참 잘 둘러쳤다고 흐뭇해서 중얼거렸습니다.

며칠후 이웃마을에 나들이를 갔다온 꿀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.

너구리가 자기네 살구나무를 찍어버리고 새로 떠온 살구나무모를 심고있었던것입니다.

《아니, 이게 무슨짓인가. 남의 집 나무를 찍다니?》

꿀꿀이가 야단을 치자 너구리는 흐르는 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.

《허, 열매도 안 달리는 나무는 키워 뭘 하겠나. 과수원을 가꾸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살구나무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없다누만. 몇해가 지나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 건 나무가 병들어서 그런다누만. 그 친구가 준 이 살구나무모는 병에도 잘 견디는 우량 품종이래.》

너구리의 말에 꿀꿀이는 억이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

몇해를 애지중지 키워 이제부터는 덕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가꾸게 되었으니 말입니다.

그렇다고 하여 자기가 한 거짓말을 곧이 듣고 도와주느라 애쓰는 너구리에게 차마 해볼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.

《자, 새 나무를 심었으니 오륙년쯤 지나면 첫 열매를 따게 될거네.》

《고, 고답네. 도, 도와주어서...》

너구리가 돌아가자 꿀꿀이는 찍어버린 살구나무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

대문밖 백양나무가지에 등지를 틀고 사는 까치가 그 모양을 보고 웃음을 참다못해 한마디 했습니다.

《깍깍, 살구 몇알 아끼다가 큰 나무를 잃었군요. 깍쟁이한테 손해만 차례지는 법이지요.》